

연합뉴스

이우환 "그림 잘 그리는 아이에게 훌륭한 화가감...거짓말"

"그림 못 그려도 위대한 아티스트 될 수 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장래 훌륭한 화가 되겠다, 그런 말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림 잘 그린다는 거, 손재주 있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림 하나도 못 그려도 위대한 아티스트 될 수 있어요."

세계 예술무대에서 주목받는 예술가 이우환(79)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원장 김갑수)에서 열린 '작가와와의 만남' 시간을 가진 후 기자와 만나 예술가에 필요한 건 독서와 사고(思考)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청나라 시대 계좌원 화보에 나온 말을 꺼냈다.

"그 책 서문을 보면 만권을 독파하고(많은 책을 읽고), 만금을 품고(많은 생각을 하고), 만릿길을 간 다음에 붓을 들어라 이렇게 써 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그에게 예술의 길로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듯 싶다.

그는 "대학에서 제자들을 40여년을 가르쳤는데, 가능하면 예술을 안 하기를 바라요"라면서 "예술은 평생 비뿔어지고, 굼고,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95%를 넘어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5%도 안 돼요. 왜 그런 길을 택하게 해요"라고 했다.

이우환은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도 젊은 예술가들에 조언해달라는 객석의 요청에 "나와 젊은 아티스트가 (예술을 하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언할 게 없다"고 운을 뗀 뒤 한마디 했다.

"어떤 작품이 잘 팔리는지 시장 논리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말려들어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것만 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장 공기는 열기를 띠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다. 열기가 식어도 남을 게 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시장 논리에 급속도로 휘말려 들지 모른다"

'현대 미술은 다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메타포어(은유)가 없고 그냥 쓰레기로 끝날 때가 정말 많다. 멀리 보고 예술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우환 작품들은 그의 표현을 빌리면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작품들이다.

한국 단색화 1세대 작가인 그의 작품들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전 세계 약 50개의 갤러리와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지난해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일본 모노하(物派) 창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모노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관계 등에 접근하는 예술을 뜻한다.

이우환은 최근 4년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기준 '생존 작가' 43위다. 한국 예술가로는 유일하다.

그의 반응은 이랬다.

"그거는 그 사람들(예술산업)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돈놀이 하는 건데 내가 그거에 관심 있을 리가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출발점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성을 찾는다는 그의 작품 세계가 오는 24일 런던 리슨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관객을 맞는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2/0200000000AKR20150322012600085.HTML?input=1195m>